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제기구화로 세계 녹색성장 선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세계 16개 국가가 참여하여 지난 2년간 기반을 다져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지난 10월 국제기구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범지구적으로 녹색성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녹색정책, 녹색기술, 녹색재원 등 녹색삼각형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런 점에서 녹색삼각형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GGGI의 국제기구화는 매우 긴급하고 시의적절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의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GGGI가 국제기구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GGGI는 우리 주도하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는 최초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주도하에 설립 운영되었다. 그러나 GGGI는 선진 개도국인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국제화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만든 기구이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범지구적 녹색성장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적 논의체계를 주도하는 계기를 확보할 수 있다. 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GGGI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특히 개도국의 발전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설정한 이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GGGI는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10여국에서 녹색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GGGI를 통해 녹색협력 국가의 폭을 크게 확대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가교역할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호보완적, 협력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은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여러 국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향후 GGGI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괄하며, 각국 정부와 국제전문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미 설립한 녹색기술센터(GTC)에 이어 지난 10월 송도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정책-기술-재원의 녹색삼각형 중심국가로서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